

學校圖書館의 發展과 現職教師의 認識에 관한 考察

全北大學校圖書館學科
助教授 崔 貞 泰

차 례

- | | |
|------------------|------------------------|
| 1. 序 言 | 3. 調查對象校의 現況과 教師의 圖書館觀 |
| 가. 研究의 意義와 目的 | 가. 調查對象者의 프로필 |
| 나. 研究의 範圍와 方法 | 나. 調查對象校의 現況과 要求 |
| 2. 學校圖書館의 現狀과 課題 | 다. 教師의 認識과 提言 |
| 가. 學校圖書館과 圖書室 | 4. 結 言 |
| 나. 司書教師 | 參考文獻 |
| 다. 施設 및 藏書 | 附 錄 |

1. 序 言

가. 研究의 意義와 目的

人類의 文化가 점차 발전하면서 情報과 文獻의 量이 그 比例에 맞추어 다양하게 量産됨으로서 그 도도한 물결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或者는 「情報의 폭발시대」라 하기도 하고 「정보시대의 危機」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하여 인류는 科學技術을 개발하고 敎育을 革新하여 人材를 양성하며 情報를 관리하고 情報의 댐(dam)을 調節할 圖書館을 만들어 社會의 發展을 돕고 있다.

圖書館은 人類文化와 함께 커 나왔고 오늘날 社會의 발전은 도서관이 이룩해온 培壤土위에 자라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圖書館없는 先進文化社會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본다. 圖書館的 側面에서 볼 때 社會뿐 만 아니라 學校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學校敎育은 「敎師 - 講議 - 敎科書」의 等式아래 光復後 40여년간이나 거의 같은 획일적인 學習方法으로 敎育을 담당해 왔다. 그 결과, 社會의 諸分野에서 가장 落後된 곳이 敎育의 場이었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靑少年問題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어떻게, 어떤 方法으로 指

導할 것인가 하는 것이 커다란 命題가 아닐 수 없다. 대체로 先進國의 사회에서는 圖書館은 社會의 중요한 機構體로 인정받고 있다. 公共圖書館은 말할 나위없고 학교생활에서의 學校圖書館은 學習活動하는데 빼어 놓을 수 없는 必須品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도 晩時之歎은 있지만 이제부터 靑少年期の 初, 中等學校生活에서 도서관을 生活化하고 교육의 科目에서 「圖書館」을 삽입하여 「教師-圖書館-教科書」라는 개념적 기초위에서 재래식기능과 關係를 再定義함으로써 時流에 맞는 教育效果를 얻게하여¹⁾ 教育百年大計의 기반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急先務라고 생각되어진다.

本 研究의 目的은 槇체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學校圖書館의 現狀은 어떠한가, 그 程度는 어느쯤 인가? 學校圖書館이 發展치 못하는 理由는 무엇이며, 저해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發展할 수 있는 方途는 없는 것인가? 있다면 어떻게? 이러한 課題를 가지고 文獻調査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初, 中等學校에서 종사하는 一線教師를 對象으로 하여 그들이 보는 圖書館觀과 圖書館의 急先務, 機能, 저해와 沈滯原因등을 살피고 學校圖書館의 發展方向을 찾아보며 앞으로 학교도서관의 活性化를 위한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것이며, 研究의 具體的인 目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初·中等學校圖書館의 内外形的인 統計를 찾아 基準値와 比較 分析한다.

둘째, 現職 初·中等學校 教師들이 認識하는 圖書館觀을 確認해 보고 그들의 要求와 意見을 수렴하여 學校圖書館 發展에 一翼도록 한다.

셋째, 학교도서관의 活性化를 위한 그 方法을 提言하며,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의 발전이 學校教育和 國家의 발전에 일치함을 인식시키는데 있다.

나. 研究의 範圍와 方法

現行 우리나라 圖書館法에 “學校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學生 및 敎員의 學習, 敎養, 調査, 研究 및 레크레이션등 그 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²⁾을 말하는데 本稿에서는 學校圖書館의 範圍를 實業專門學校, 初級大學, 大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圖書館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初等學校(國民學校)와 中等學校(中學校, 高等學校) 圖

1) 최성진, “학교도서관-교육정보「시스템」의 관점에서 본 기능에 대하여” 圖書館學會誌 (延大圖書館學會) 第4號 (1979) p. 136.

2) 圖書館法 第3條 3項

書館으로 그 對象을 한정하고, 用語의 定義에서도 「도서관」이라함은 “圖書 및 그와 類似한 資料를 蒐集, 整理, 保管하여 讀書, 調查, 研究, 參考, 趣味, 娛樂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組織 運營되는 施設”³⁾인 完備한 組織체로 보고, 「도서관」은 “도서를 모아두고 열람케 하는 방”⁴⁾으로 學級文庫 내지 簡易讀書室(reading room) 정도로 해석하고자 한다.

다시, 圖書館法은 學校圖書館의 設置에 관한 條項으로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는 圖書室 또는 圖書館을 - (전문학교 이상 대학도서관은 생략) - 두어야 한다”⁵⁾고 규정하면서 「學校施設, 設置基準令」을 制定하여 “校舍는 學習과 保健衛生에 적합한 것으로 圖書館, 圖書室의 시설을 設置하도록”⁶⁾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法律的 뒷받침으로 學校圖書館을 運用하도록 하는데 現實은 위 규정대로 잘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學校圖書館의 전반적인 現況을 調查하고 여기에 配置된 司書教師와 藏書數, 閱覽席 등을 살펴 法規上의 기준치와 비교분석하는 한편, 현재 現職에 종사하는 全國 初, 中等學校의 一線教師 220인” (全北 80, 忠南 30, 忠北 50, 慶南 20, 京畿 20, 仁川 20인; 初等學校教師 110, 中等學校教師 110인)을 標本對象으로 하여 24개항의 質問紙(부록참조)를 사용 書面과 口頭로 質疑 面談하여 일선교사들의 허심탄회한 意見과 提言을 듣고자 하였다. 내용은 그들이 소속한 학교의 실태와 도서관의 役割, 機能등을 조사하고 현재 학교도서관이 침체되어 있는 원인과 발전할 수 있는 方案을 찾는데 그 意義를 두고자 한다. 그러나 응답자가 所屬한 학교가 韓國의 표준적인 圖書館을 운용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어서 그들의 見解가 반드시 전체 教師의 의견을 代辦한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응답자중 절반이 40대 이상의 年 齡이고, 그중 3분의 2가 教育經歷 10년 이상이 되는 中堅教師들이어서 응답의 信憑性을 豫見할 수 있고, 地域의 分布에 있어서도 大都市와 中小都

3) 圖書館用語集, 한국도서관협회, 1966 p. 29.

4) 국어대사전, 이희승편, (서울:민중서관 1983.) p. 899

5) 圖書館法 第25條1項

6) 大統領令 第4,398號(1969. 12. 4)

7) 1984년 全北大學校에서 夏期放學중 실시된 「司書教師講習會」에서 受講한 全員임.

市, 시골이 골고루 分散되어 있기 때문에 全國教師들의 일반적인 의견과 別差없을 것으로 看做하여 이 調査에 강한 意義를 부여하는 것이다.

2. 學校圖書館의 現狀과 課題

한 나라의 文化水準을 그 나라 도서관의 活動如何로 가늠한다고 할 때 한 나라의 教育수준도 학교도서관의 발전정도를 보고 評價를 내릴 수 있다. 그것은 그 나라가 잘 살고 教育문화수준이 높으며 教育理念과 方法 및 施設등이 잘 갖추어진 나라일 수록 학교도서관의 발달도 현저하다는 것을 알 때 그 말은 더욱 타당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光復후 지금까지 社會發展과 더불어 教育부문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教育의 발전이 內實을 기하지 못하고 또 質的수준을 갖춘 扎实的 成長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見解가 支配的이다. 냉정한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의 教育은 量的 成長에만 치중된 나머지 質的인 面에서는 踏步狀態에 놓여 있으며, 特히 教育의 質的向上을 기여하는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沈滯狀態가 심각하여 그 심각성은 앞으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대체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政策當局者와 社會의 認識不足으로 학교도서관이 방치상태에 있고, 關係法令의 未備로 학교마다 圖書館(室)의 設置가 되어 있지 못하고, 되어 있더라도 내용이 부실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施設과 資料마저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또한, 이를 運用할 司書教師 또는 專擔教師를 갖추지 못하는데 起因하는 것 같다.

이러한 내용을 다음 各項에서 詳述키로 한다.

가. 學校圖書館과 圖書室

學校圖書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도서관이 存在하여야 한다. 圖書館自体가 없는 상황에서 資料의 부족이나 司書教師의 權益을 논의할 수 없고 그 發展도 전망할 수가 없는 것이다.

1983년 文教部 統計에 의하면⁸⁾ 현재 우리나라는 6천 5백개의 國民學校와 3천 7백 48개의 中等學校(中學校 2,254, 高等學校 1,494個校)가 있는데 그 중 「圖書館」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국민학교가 50개

8) 文教統計年報, (서울: 문교부 1983.) p. 812.

교(0.07%)이고, 중등학교는 200개교(0.5%)이다. 簡易形態의「圖書室」수는 국민학교가 2천1백62실이고 중등학교는 2천2백19실로서「도서관」보다 비교적 많은 수를 보여준다(표-1 참조).

〈표-1〉 초·중등학교 도서관·실 현황

구 분	학교 수	학생 수	교 원 수	도서관수	도서실수	계
초등학교	6,500	7,807,535	126,163	50	2,162	2,212
중등학교	3,748	4,685,353	126,459	200	2,219	2,419
중 학교	2,254	2,672,307	63,350	32	1,130	1,162
고등학교	1,494	2,013,046	63,109	168	1,089	1,257
계	10,248	12,492,888	252,622	250	4,381	4,731

자료 : 문교통계연보 1983, 문교부

「도서실」의 의미는 前述한 바와같이 体系的인 組織과 資料를 갖춘 施設物이 아닌 臨時 공부하는 房에 지나지 않으며 學級文庫 정도의 소규모 방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學級文庫는 시설 및 설비, 전문직원의 채용과 諸般費用 등으로 學校圖書館을 가질 수가 없어서 생기는 過渡期的 현상이요 消極的이며 原始的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矛盾을 내포하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制度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도서관 발전에 방해가 되는 것⁹⁾ 이기에 量的으로 많은 「도서실」의 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 「圖書館法」에는 각급 학교마다 도서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사무분장 규칙」이나 「도 교육위원회 사무분장 규칙」의 각 부서 사무분장 내용을 살펴보면 初等教育課 소관의 사무국 분장 속에는 단지 학교문고 지도에 관한 규정만이 있을 뿐이고 학교도서관에 관해서는 그 規程을 찾아볼 수 없어 學校圖書館보다 學級文庫를 더 艱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듯 싶다¹⁰⁾ 그러나 사실은 학교도서관은 學校教育에 있어서 必須不可缺한 基礎的 設

9) 李漢龍, “學級文庫나, 學校圖書館이나?” 연세교육과학 8집(1975) p. 208.

10) 같은 논문, p. 207.

備¹¹⁾이며 教育資料센터이고 고도로 전문화된 교육적 奉仕를 위한 指導 기관으로서, 資料의 수립, 정리, 보관 제공에 관한 整理的 업무와 圖書館利用의 증진을 위한 독서상담 및 지도 참고봉사등 敎導의 업무이외 다음 7 가지 큰기능을 지니고 있다. 즉,

- ① 자료의 수집기능
- ② 자료의 활용기능
- ③ 독서분위기의 조성
- ④ 독서습관의 고취
- ⑤ 연구의 조건제공
- ⑥ 학급문고의 지원
- ⑦ 관외활동기능¹²⁾

이처럼 학교도서관의 독특한 役割은 도저히 學級文庫나 공부방으로서 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웃 日本에서는 「學校圖書館法」을 별도로 제정하여 設立者와 國家에게 학교교육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도록 任務를 부여하며 經費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토록 규정¹³⁾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學校圖書館에 관한 別度の 法律이 없으며 指導 및 監督의 體制마저 다양화되어 있다. 즉,

文教部職制 第14條3項(社會職業教育局 社會教育課 分掌事項)에는 “ 각종 도서관에 대한 지원, 육성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이 明示되어 있는데 社會職業教育局의 行政 行爲는 기능상 公共圖書館에 대한 지도감독 청이며¹⁴⁾ 學校圖書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形式上으로는 「裝學官室」이 있어 학교도서관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지만 line部署가 아닌 Staff 部署이어서 큰 行政力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市, 道 教育委員會 또는 市, 道 教育長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教育委員會 내부규정에서도 위의 경우와 같이 지도감독청의 二元化를 보여준다. 즉, 서울特別市는 「學務局社會教育課」에, 釜山市와 各道의

11) [日本] 學校圖書館法 第1條

12) L. F. Fargo. The Library in the school, Chicago : A. L. A. 1974. p. 35 ~ 39.

13) [日本] 學校圖書館法 第6, 7 및 13條

14) 「大學圖書館」의 운영감독은 「大學局 大學學務課」의 분장사항으로 되어 있다.

教育委員會(濟州道는 除外)「學務局社會體育課」에서 “도서관운영의 지도, 감독”¹⁵⁾을 하도록 각각 소속기관을 달리하고 있다.

이와같이 法制下에서는 學校圖書館의 위치는 마치 孤兒와 같은 존재로서 보호해줄 母體가 없으므로 法規의 制度化로 一元的인 소속청을 찾아야 하며 統割指導할 전담부서가 절실히 요망된다.

그 다음 時急한 일은 學校圖書館(도서관이 아닌)의 設置다. 현재 全國의 250개의 初, 中等學校圖書館으로 1만여 학교의 1천 2백만여명의 학생과 25만인의 교사를 위해 봉사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미흡한 수적 열세가 아닐수 없다(표-1 참조). 이러한 수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국가정책사업으로 각 학교마다 한개의 圖書館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야 하고, 현재 4천 3백여개의 「도서관」도 하루 속히 「도서관」으로 陽性化하는 方向으로 변환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나. 司書教師

學校圖書館이 설치되면 이를 運用할 司書教師나 專門司書가 배치되어야 함이 당연한 論理이다. 그러기에 우리 圖書館法은 “學校圖書館에는 閣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관리할 司書教師 또는 司書職員을 두어야 한다”¹⁶⁾고 하고 같은法 施行令에도 여기에 배치하여야 할 司書나 司書教師의 人員數를 明示하고 있다.¹⁷⁾ 이와같은 法律的 조치에도 불구하고 現實은 그렇지 못하다. 1983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초등학교의 5백 72인(도서관직원 포함)과 중등학교의 1천 2백 36인, 도합 1천 8백 8인의 司書教師 또는 司書가 근무하고 있다(표-2 참조). 이 人員數는 우리나라 初, 中等學校 전체 教師 25만 2천인의 0.7%에 해당되고, 學校數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포함하여 5, 6학년마다 1인의 司書教師나 司書가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통계」는 각 학교에 배치된 有資格者의 수는 749인으로서¹⁸⁾ 도서관(도서관 포함) 직원수의 41% 밖에 확보치 못하고 있다. 이로써 司書教師의 부족한 수를 이미 설치된 圖書館(室포함)에 당장 배치한다

15)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도의 教育委員會職制(1981. 11. 9) 大統領令 第 10,631號, 第 8條, 12條, 15條.

16) 圖書館法 第 6條

17) 圖書館法施行令 第 6條

18) 한국도서관통계, 한국도서관협회 1981. p. 16.

〈표-2〉

사서교사 및 전담직원현황

구 분	도 서 관	도 서 실	계	자격증소지자
초등학교	11	561	572	43
중등학교	202	1,034	1,236	706
중학교	20	342	362	218
고등학교	182	692	874	488
계	213	1,595	1,808	749

자료 : ① 문교통계연보 1983, 문교부

② 한국도서관통계 1981, 한국도서관협회

하여도 $4,731 - 1,808 = 2,923$ 인이 부족하고 또 각 학교마다 도서관을 신설하여 1명씩만 補充한다 하여도 ¹⁹⁾ $10,248 - 1,808 = 8,440$ 인이 모자란다. 그리고 부족한 수를 원칙에 의한 有資格者로 충당하여야 할 때 부족한 인원수는 그만큼 더 많아진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圖書館法이나 施行令이 있어도 그 施行이 잘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학교는 도서관학의 전문지식이 없는 일선교사로 하여금 圖書館을 兼職케 하거나, 準教師 이상의 자격을 갖고 司書教師研修講習을 통하여 司書教師의 자격을 취득 ²⁰⁾케 한후 兼任 司書教師로 配置하고 있다. 이들이 240여시간의 短期 자격연수로써 取得한 成果를 教育現場에서 適當 20~25시간의 他科目의 수업을 감당하면서 圖書館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²¹⁾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司書教師의 短期 자격연수강습은 本人과 學校 그리고 學生을 위해서도 별의미가 없으며 사서교사의 專門性을 闡明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制度는 곧 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美國이나 英國에서는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專門司書나 司書教師는 圖

19) 圖書館法施行令은 학생수가 1,200인 이상일때 2인 이상의 司書教師나 司書를 두도록하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1인으로 부족하다.

20) 教育法 第79條 및 教員資格檢定令 第22條

21) 金容喆, 學校圖書館의 Media Center化를 위한 研究, (中大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83.) p. 7.

書館學을 전공한 碩士學位 소지자를 자격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으며²²⁾ 우리나라 司書教育의 情況을 보아도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四年制 大學에서 在學중 전공이외에 敎職科目 16학점을 이수하거나, 國立師範 大學에서 「圖書館敎育科」를 전공하면 司書敎育資格證을 취득하기도 하고, 敎育大學院에서 「司書敎育」과정을 전공, 碩士學位를 취득하면 역시 같은 사서교사자격증을 얻도록 하여 그 자격의 品位가 格上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大學의 圖書館學科에서는 敎育의 質뿐 아니라 量에 있어서도 이미 現場의 供給을 應當할 만큼 充分한 人員을 準備하고 있다. 全國 30여개의 도서관학과에서 해마다 배출되는 졸업생의 수가 1천 5백여명의 上廻하고 있는데도 司書敎師의 敎職과목을 선택한 대다수의 졸업생은 法規의 未備와 行政力의 不實로 학교도서관에의 취업이 保障되지 못하여 학교도서관은 主人없는 虛像만 있을 뿐 이다.

이러한 현상이 若起된 가장 큰 要因은 上記한 法規가 死文 化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제일 먼저 지적해야 하겠으며, 다음은 現行 실시되는 司書敎師 제도가 級(rank)에 따른 區分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初, 中等學校에서 근무하는 司書敎師는 職級이 單一化되어 敎育的 特性을 전혀 무시하고 있으며, 敎育公務員法上 司書敎師의 資格規定이 養護敎師와 같이 特殊敎師의 系列에 두고 待遇面에서는 2級正敎師와 同等할 뿐 1級正敎師로 昇進하기 위해서는 이 職을 기피하도록 되어 있다.

司書敎師는 一般敎師의 資格을 소지한 자로서 所定의 司書資格을 아울러 가져야 하며²³⁾ 司書敎師로서 任命과 동시에 格上된 地位를 부여하여 그 專門性和 自律性을 最大한 保障하여야 할 것이다.

다. 施設 및 藏書

學校圖書館 施設이란 圖書館資料를 保存하고 學生 및 敎師들이 자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場所와 設備를 말한다. 이는 學校圖書館의 役割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司書敎師와 함께 없어서는 안될 基本要素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基本施設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크고 작은 형태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 建物(室)이나 備品등 附帶施設의 결합때

22) E. T. Prostan,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Littleton : Librarian Unlimited, 1982.) 金容喆, 같은책 p. 7. 재인용.

23) 孫文哲, “學校圖書館職員의 資質과 그 職務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論集 第7집(1980) p. 97.

문에 학교도서관 본래의 使命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²⁴⁾ 그 이유는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財政的 支援도 빈약할 뿐더러 法規의 未備와 政策 決定者 및 行政家의 認識不足과 無關心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겠다.

과거(1962년) 文敎部에서 「學校圖書館 施設에 대한 基準」(案)을 만들어 학급단위로 열람실, 참고열람실, 신문잡지실, 정리실, 직원연구실등을 설비토록 하고 그 數量과 面積을 기준하여 제시한 바 있었다. 이것은 案으로만 일단 그치고 말았으나 학교도서관에도 이와같은 시설이 필요함을 알고 基礎한 것이어서 그 意圖는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1969년 정식으로 「學校圖書館施設基準」이 公布되었는데²⁵⁾ 그 내용은 처음에 나온 試案보다 오히려 退步하고 있다.

이 基準은 閱覽座席數와 備置圖書(藏書)數에 대해서만言及하였는데, 열람좌석수에 있어 국민학교는 “보통교실은 겸용” 중학교는 “1학급당 3석 다만 학교마다 20석이상이어야 한다” 고등학교는 “1학급당 5석, 다만 학교마다 20석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여 애매모호하게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대로 만일 20석의 규모로 學校圖書館을 시설한다면 과연 도서관의 모습이 갖추어 질 것인지 너무나 현실을 무시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1983년말 현재 우리나라 初, 中等學校의 열람좌석수는 34만 7천 5백 여석으로 총학생수 1천 2백만명의 1.2%에 해당된다. 그 중 초등학교 열람석은 11만 4천석으로 국민학교생 전체의 1.4%이고, 중등학교는 그보다 많은 23만 3천석으로 중등학교생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다(표-3 참조).

학교도서관과 도서실을 포함한 열람좌석수의 비율은 法定基準을 떠나서 너무나 미흡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그 다음, 藏書數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위에서 例擧한 「學校圖書館設置基準」중 備置圖書數를 보면 국민학교는 “1학급당 단행본 100권 이상”을 비치하도록 하고, 중학교는 “학급당 단행본 12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500권 이상, 고등학교는 “학급당 10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600권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준거한 것인지 <표-3>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전국

24) 한국도협, 學校圖書館施設, 서울: 同協會, 1965. p. 3.

25) 大統領令 4,398號, 學校施設, 設備基準令.

〈표-3〉

시설 및 장서현황

구 분	열 람 석 수			장 서 수		
	도 서 관	도 서 실	계	도 서 관	도 서 실	계
초등학교	4, 216	109, 903	114, 119	142, 675	6, 077, 186	6, 219, 861
중등학교	47, 482	185, 917	233, 399	1, 441, 440	8, 515, 450	9, 956, 860
중 학교	6, 420	82, 671	89, 091	211, 772	4, 701, 497	4, 913, 269
고등학교	41, 062	103, 246	144, 308	1, 229, 638	3, 813, 953	5, 043, 591
	51, 698	295, 820	347, 518	1, 584, 085	14,592, 636	16, 176, 721

자료 : 문교통계연보 1983. 문교부.

통털어 6백 2십만여 책으로 학생 1인당 0.8책이고, 중등학교는 1천여만여 책이 되어 중, 고생 1인당 약 2책씩 도달되고 있다.

그러나 藏書의 皮相의인 量을 떠나 內容을 관찰하면 全藏書의 92%가 〈표-3〉 圖書室資料이어서 종류와 내용이 複本으로 겹치고 選擇過程에서 전문가에 의한 選定圖書가 드물며 價直面에서도 시기가 지난 不用圖書 내지 死藏된 資料가 많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학교도서관의 備品에 관한 規程을 보자.

圖書館法 第 25 條는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閣令으로 定한다”고 하였고 同法施行令 第 2 條에는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各級學校의 施設基準令에 의한다”고 하였으며, 다시 圖書館의 設備종목으로 「學校校具 設備에 관한 規則」²⁶⁾을 設定하고 있다. 여기에 갖추어야 할 備品은 ① 도서열람용 책상과 걸상 ② 도서목록 카드함 ③ 서가 카운터 ④ 기타 도서실에 필요한 설비, 이상 4 항목뿐 이다. 발전하는 現代圖書館에서 반드시 필요한 非圖書資料나 시청각자료가 제외되어 있고 司書教師가 活用할 諸般시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이러한 기준은 너무나 形式에 치우친 감을 지울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圖書館에 관한 관계법규와 規程등은 거의 有名無實하며 體制와 論理를 갖춘 면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 더우기 1963년에 制定된 圖書館法은 20년이 지나도록 改定을

26) 文敎部令 第 408號(1977. 5. 30)

모르고 있으며 그 많은 社會的 變化에서도 制定 당시의 기준치에 아직도 우리 圖書館은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하여 나타난 현상은 圖書館政策의 死角地帶를 보이고 教育現實의 退潮를 證言하는 것이며 나아가 國家의 장래에 까지 암울케 한다.

하루速히 학교도서관 관계법을 再檢討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도서관의 發展方向을 調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다음 學校行政家와 司書教師, 一般教師, 이들이 심기일전하여 學校圖書館의 새로운 認識과 자세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3. 調查對象校의 現況과 教師의 圖書館觀

가. 調查對象者의 프로필

序言에서 記述한 바와같이 조사의 대상자는 : 1984년 7월 20일부터 1984년 8월 30일까지 夏季放學중 全北大學校에서 主管 실시한 全國 初中等學校 現職教師 資格研修課程에 참여한 자 중에서 「司書教育班」 강의를 受講한 220인 全員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남자 180인(82%)과 여자 40인(18%)으로 구성되었으며 在職學校로는 초등학교의 110인과 중등학교의 110인 인데 중등학교는 다시 중학교 재직교사 60인과 고등학교 재직교사 50인을 포함한다(표-4 참조). 이들의 年令分布는 40대가 71인(32.3%)으로 가장 많고 20대(25.9%), 30대(24.5%) 순이며 50대 이상이 37인(16.8%)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민학교 교사 50대 이상이 26인(23.6%)이나 되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표-5 참조)

<표-4>

조사대상자의 성별 및 학교

구 분	초 등(%)	중 등(%)	중 고	계 (%)
남	83 (75.4)	97 (88.2)	49 48	180 (81.8)
여	27 (24.6)	13 (11.8)	11 2	40 (18.2)
계	110 (100)	110 (100)	60 50	220 (100)

〈표-5〉

년 령 분 포

구 분	초 등 (%)	중 등 (%)	중 고	계 (%)
10 대		1 (1.0)	1 -	1 (0.5)
20 "	20 (18.2)	37 (33.6)	23 14	57 (25.9)
30 "	30 (27.2)	24 (21.8)	12 12	54 (24.5)
40 " 이상	34 (31.0)	37 (33.6)	20 17	71 (32.3)
50 "	26 (23.6)	11 (10.0)	4 7	37 (16.8)
계	110 (100)	110 (100)	60 50	110 (100)

그 다음 이들의 교육經歷을 보면 20년 이상의 교직생활을 한 자가 77인 (35%)이고, 10년 이상이 66인 (30%)이어서 전체의 3분의 2가 教育經驗이 풍부한 중견교사 들이다. 특히 국민학교교사 과반수 이상이 20년 이상을 敎職生活하였기 때문에 〈표-6 참조〉, 학교와 地域社會에 영향력이 크다고 보아 본 교육의 效果도 노력여하에 따라 그 만큼 附加價値가 있다고 보겠다.

〈표-6〉

교 육 경 력

구 분	초 등 (%)	중 등 (%)	중 고	계 (%)
1 ~ 5년	16 (14.6)	34 (30.9)	20 14	50 (22.7)
5 ~ 10년	4 (3.6)	23 (20.9)	10 13	27 (12.3)
10 ~ 20년	32 (29.1)	34 (30.9)	17 17	66 (30.0)
20년 이상	58 (52.7)	19 (17.3)	13 6	77 (35.0)
계	110 (100)	110 (100)	60 50	220 (100)

다음 응답자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仁川 등 대도시의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시골의 국민학교 分校에 在職하는 사람으로 골고루 構成되어 있다 〈표-7 참조〉. 때문에 이들이 圖書館을 대하는데 있어서 보는 視覺과 느껴온 감정은 全國 대다수 一線教師의 意見과 大同小異하다고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다.

〈표-7〉

소 재 지

구 분	초 등 (%)	중 등 (%)	중 고	계 (%)
대 도시	17 (15.4)	26 (23.6)	11 15	43 (19.6)
중소도시	29 (26.4)	45 (40.9)	18 27	74 (33.6)
시 골	64 (58.2)	39 (35.5)	31 8	103 (46.8)
계	110 (100)	110 (100)	60 50	220 (100)

나. 調査對象學校의 現況과 要求

조사대상학교 220校의 총 학생수는 15만3천5백인이고 교원수는 4천4백71인으로 1학교당 평균 697인의 학생과 18인의 교원이 재학 또는 재직하고 있다. 學校圖書館(室)은 28%를 차지하여 〈표-8 참조〉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보다 비율이 높다. 그것은 응답자가 피교육자로서의 차출시 그 학교에 도서관(실)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도서관에 관여하고 있는 예가 많았기 때문 일 것이다.

〈표-8〉

소속학교의 현황

구 분	초 등	중 등	중	고	계
학 생 수	10,326	143,174	72,783	70,391	153,500
교 원 수	235	4,236	1,805	2,431	4,471
학교도서관(실)수	72	85	43	42	63

따라서, 이들의 대부분이 이 분야에 관심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현재 도서관(실)에서 가장 시급한 일을 물어 보았다. 전체 220명중 「시설 확보」가 75인(3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장서 확보」가 64인(29.1%), 「직원 확보」 57인(25.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9 참조〉. 여기에 나타난 「시설 확보」의 意味는 특히 초, 중등학교에서는 도서관에 갖추어야 할 書庫, 열람석, 參考資料室등을 뜻하기 보다 오히려 시설의 근본이 되는 圖書館建物 自体를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실)이 獨立建物이 아니고 遊休教室 내지 강당의 일부를 借用하여 「圖書館(室)」명칭만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확보를 모두가 渴求하고 있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표-9〉

도서관(실)에서 가장 시급한 일

구 분	초 등 (%)	중 등 (%)	중	고	계 (%)	순위
직원 확보	30 (27.3)	27 (24.5)	13	14	57 (25.9)	③
장서 확보	29 (26.4)	35 (31.8)	17	18	64 (29.1)	②
시설 확보	34 (30.9)	41 (37.3)	23	18	75 (34.1)	①
무 응 답	17 (15.4)	7 (6.4)	7	-	24 (10.9)	④
계	110 (100)	110 (100)	60	50	220	

한편, 圖書館(室)이 없는 學校는 그 必要性은 어떠할까?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7.7%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하고 19.5%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여 〈표-10 참조〉 거의 대부분(77.4%)의 일선교사들이 圖書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10〉

도서관의 필요성은?

구 분	초 등 (%)	중 등 (%)	중	고	계 (%)
절대 필요하다	63 (57.3)	64 (58.2)	35	29	127 (57.7)
어느정도 필요하다	18 (16.4)	25 (22.7)	9	16	43 (19.5)
있으나 마나다	2 (1.8)	0 (-)	0	0	2 (0.9)
별로 필요없다	1 (0.9)	0 (-)	0	0	1 (0.5)
무응답	26 (23.6)	21 (19.1)	16	5	47 (21.4)
계	110 (100)	110 (100)	60	50	220 (100)

이어서 조사대상학교의 司書教師 有無와 資格證 有無, 그리고 도서관 업무의 專擔 여부를 조사하였다(표-11 참조). 220校에는 62인(28%)의 司書教師가 있는데 그중 9인(4.1%)만이 이 업무를 專擔하고 116인(52.7%)은 다른科目의 수업 내지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무응답자 95인(43.2%)도 한가지 업무에만 전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 거의 대부분의 司書教師가 고유의 전문업무를 버려둔채 他雜務에 동원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資格證 所持有無를 보면 다만 19인(8.6%)만이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매우 빈약한 사정을 우리는 본다. 일반적으로 資格證

〈표-11〉

사서교사, 자격증, 업무전담유무

구 분		초 등 (%)	중 등 (%)	중 고		계 (%)
사서교사	유	20 (18.2)	42 (38.2)	18	24	62 (28.2)
	무	90 (81.8)	68 (61.8)	42	26	158 (71.8)
자 격 증	유	5 (4.6)	14 (12.7)	3	11	19 (8.6)
	무	49 (44.5)	59 (53.6)	36	23	108 (49.1)
	무응답	56 (50.9)	37 (33.7)	21	16	93 (42.3)
업무전담유무	전담	3 (2.7)	6 (5.4)	0	6	9 (4.1)
	겸무	53 (48.2)	63 (57.3)	38	25	116 (52.7)
	무응답	54 (49.1)	41 (37.3)	22	19	95 (43.2)

(certification of qualification) 이란 일정한 身分이나 地位를 시험이나 심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 주는 證書인데 유독 司書資格만이 이를 檢定할 國家試驗도, 審査機構도 없으며, 高等教育機關이 良質의 專門人을 양성하고 있는데도 短期講習會가 아직도 存在하여 과연 여기서 생산되는 資格證으로서 전문성에 합당한 身分이나 地位가 認定될 것인지 의구심이 간다.

다음, 調查對象學校의 藏書數와 閱覽席數를 조사하였다. 初, 中等 전체 학교에서 31.4% (69개교)가 장서 1천책 미만이고, 47.7% (105개교)가 5천책이 미달하여 영세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열람좌석수에 있어서도 71.8%가 100석 미만이어서 장서수와 함께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빈약한 시설현황을 나타내고 있다(표-12 참조). 이러한 현상과 인식이 빨리 사라져 최소한 우리가 20년전에 기준한 法規 기준치가 現實에 가까워 질때 오늘의 學校圖書館의 모습은 달라 질 것이다.

다. 教師의 認識과 提言

전체 응답자 220인을 대상으로 「圖書館」이라 하면 제일 먼저 聯想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187인(85%)가 「장서」라고 대답하였다. 그 아래는 매우 낮은 비율로 14인(6.4%)이 「서고」라고 답하고 「건물」 9인(4.1%), 「정보」 6인(3.7%), 「시험」 3인(1.4%)의 순으로 나타났다(표-13 참조).

대다수의 教師가 「도서관」을 「장서」와 연관지어 생각한다는 것은 도서관을 한낱 「서고」 또는 「입학시험을 위한 공부방」정도로 보아온 중

〈표-12〉

장서수 및 열람좌석수

구 분		초 등 (%)	중 등 (%)	중 고		계 (%)
장 서 수	1,000책 미만	43 (39.1)	26 (23.6)	12	14	69 (31.4)
	1,000~5,000	47 (42.7)	58 (52.7)	34	24	105 (47.7)
	5,000~10,000	8 (7.3)	16 (14.5)	8	8	24 (10.9)
	10,000책 이상	2 (1.8)	2 (1.8)	0	2	4 (1.8)
	무응답	10 (9.1)	8 (7.4)	6	2	18 (8.2)
계		110 (100)	110 (100)	60	50	220 (100)
좌 석 수	100석 이하	83 (75.4)	75 (68.2)	42	33	158 (71.8)
	100~500	6 (5.5)	18 (16.4)	5	13	24 (10.9)
	500~1,000	0 (-)	2 (1.8)	0	2	2 (0.9)
	1,000석 이상	0 (-)	0 (-)	0	0	0 (-)
	무응답	21 (19.1)	15 (13.8)	13	2	36 (16.4)
계		110 (100)	110 (100)	60	50	220 (100)

〈표-13〉

「도서관」이라하면 연상 되는것

구 분	초 등 (%)	중 등 (%)	중 고		계 (%)	순위
건 물	5 (4.6)	4 (3.6)	3	1	9 (4.1)	③
장 서	93 (84.5)	94 (85.5)	52	42	187 (85.0)	①
서 고	7 (6.4)	7 (6.4)	4	3	14 (6.4)	②
사 서	0 (-)	0 (-)	0	0	0 (-)	⑦
정 보	3 (2.7)	3 (2.7)	1	2	6 (3.7)	④
시 험	1 (0.9)	2 (1.8)	0	2	3 (1.4)	⑤
무 응답	1 (0.9)	0 (-)	0	0	1 (-)	⑥
계	110 (100)	110 (100)	60	50	220 (100)	

래의 관념에서 상당히 변화된 현상을 보여준다.

다음, “학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컴퓨터」 「TV 및 VTR」 「도서관」 「실험실습실」 「체육관, 강당」 등 다섯 항목을 주어 필요한 순위를 기입토록 하였다.

제 1 순위에서 가장 필요한 항목은 「도서관」의 138인 (62.7%)이고,

다음은 「실험실습실」의 34인(15.5%)이고, 다음 순으로 「컴퓨터」 「체육관, 강당」 「TV 및 VTR」이 비교적 낮은 경향으로 나타났다(표-14 참조). 제 2순위에서도 무응답자를 제외한 30인(13.6%)이 역시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첫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경향은 국민학교나 중등학교가 같은 반응의 추세를 보이고 있어 前項에서 나타난 도서관의 「시설확보」는 곧 「도서관의 설치」와 의미가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표-14〉 학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구 분	초 등		중 등		계			
	1 순	2 순	1 순	2 순	1 순	2 순		
컴 퓨 터	11(10.0)	6(5.5)	7(6.4)	3 4	6(5.5)	5 1	18(8.2)	12(5.5)
TV및VTR	5(4.5)	7(6.4)	9(8.2)	6 3	6(5.5)	4 2	14(6.4)	13(5.9)
도 서 관	67(60.9)	16(14.5)	71(64.5)	41 30	14(12.7)	9 5	138(62.7)	30(13.6)
실험실습실	23(20.9)	6(5.5)	11(10.0)	4 7	12(10.9)	4 8	34(15.5)	18(8.2)
체육관, 강당	4(3.7)	7(6.4)	12(10.9)	6 6	10(9.1)	7 3	16(7.2)	17(7.7)
무 응 답	-(-)	68(61.8)	-(-)	- -	62(56.3)	31 31	-(-)	130(59.1)
계	110(100)	110(100)	110(100)	60 50	110(100)	60 50	220(100)	220(100)

다음, 學校圖書館의 기능에 관한 重要도와 順位를 조사하였다. 제 1순위에서 가장 높은것은 「독서습관형성기능」 119인(54.1%)이고 계속해서 「자료열람제공기능」, 「학급문고조력기능」, 「교재연구조성기능」, 「자료정리기능」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 2순위에서는 「자료열람제공기능」 55인(25%)이 가장높게 나타나고 그다음 「교재연구조성기능」 「독서습관형성기능」순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 3순위에서는 「교재연구조성」과 「자료열람제공」의 기능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15 참조).

이러한 반응의 결과를 종합하면 學校圖書館의 기능역할은 讀書習慣을 형성해 주고 藏書를 具備하여 제공열람토록하며 나아가 學級文庫를 도우는 기능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이것은 곧 파아고(L. F. Fargo)가 지적한 學校圖書館의 諸機能에 잘 符合되고 있다.²⁷⁾

27) 註 12 참조

학교도서관기능중 중요도 순위

<표-15>

구 분	초 등			중 등			계		
	1 순	2 순	3 순	1 순	2 순	3 순	1 순	2 순	3 순
학급문고조역기능	13 (11.8)	23 (20.9)	25 (22.7)	10 (9.1)	15 (13.0)	23 (20.9)	23 (10.5)	38 (17.3)	48 (21.8)
교재연구조성기능	9 (8.2)	21 (19.1)	29 (26.4)	6 (5.5)	27 (24.6)	25 (22.7)	15 (6.8)	48 (21.8)	54 (24.6)
독서습관형성기능	67 (60.9)	18 (16.4)	13 (11.8)	52 (47.3)	24 (21.8)	17 (15.5)	119 (54.1)	42 (19.1)	30 (13.6)
자료일람제 공기능	14 (12.7)	33 (30.0)	28 (25.5)	36 (32.7)	22 (20.0)	25 (22.7)	50 (22.7)	55 (25.0)	53 (24.1)
자료정리 기능	7 (6.4)	10 (9.1)	11 (10.0)	4 (3.6)	15 (13.6)	13 (11.8)	11 (5.0)	25 (11.4)	24 (10.9)
무 응 답	- (-)	5 (4.5)	4 (3.6)	2 (1.8)	7 (6.4)	7 (6.4)	2 (0.9)	12 (5.4)	11 (5.0)
계	110 (100)	110 (100)	110 (100)	110 (100)	110 (100)	110 (100)	220 (100)	220 (100)	220 (100)

그 다음 質問은,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이 沈滯된데 대하여 그 要因을 찾아 보았다. 學校圖書館 발전의 環境의 障礙要因으로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教育的 4개의 요소²⁸⁾로 구분하여 물어본 결과 134인 (60.9%)이 「경제적요인」을 들고 있으며 그다음 37인 (16.8%)이 「교육적요인」, 22인 (10%) 「정치적요인」, 21인 (9.5%) 「사회적요인」의 순으로 비교적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표-16 참조). 이러한 반응은 초, 중등학교를 구분한 결과에서도 그 樣相이 비슷하며 金南碩, 金正昭교수가 조사한 結果²⁹⁾와도 大同小異한 현상을 보여 도서관발전의 가장 큰 障礙要因은 經濟的인 이유이며 이에 대한 投資가 매우 艱難함을 일선 교사와 학교장은 다같이 認識하고 있다.

〈표-16〉 학교도서관이 침체된 요인

구 분	초 등 (%)	중 등 (%)	계 (%)
정치적요인	7 (6.4)	15 (13.6)	22 (10.0)
경제적요인	69 (62.7)	65 (59.1)	134 (60.9)
사회적요인	12 (10.9)	9 (8.2)	21 (9.5)
교육적요인	18 (16.4)	19 (17.3)	37 (16.8)
기 타 요인	4 (3.6)	2 (1.8)	6 (2.8)
계	110 (100)	110 (100)	220 (100)

한편, 沈滯의 原因을 學校內에서 찾아보기 위하여 다음 다섯 項目을 例示하였다. ① 학교행정가(문교부, 교육위원회포함) ② 학교장 ③ 사서교사 또는 담당교사 ④ 일반교사 ⑤ 학생들. 위요인중에서 143인 (65%)이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文教部, 教育委員會의 學校行政家에게 일차적인 責任이 있다고 하며, 그다음 51인 (23.2%)은 學校長의 榜觀 내지 無關心을 지적하고 있다(표-17 참조). 이러한 현상의 결과도 金교수가 調査한³⁰⁾ 學校長들의 見解와 一致하여 學校長本人들의 새로운 認識과 각오

28) 金南碩, 金正昭, “學校圖書館發展의 沮害要因에 관한 實證的 考察,” 圖書館學論集, 第7輯(1980) p. 41. (이논문은 경상북도 내 在職 校長, 校監을 대상 設問 調査를 토대로 한 것인데 본 조사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였음.)

29) 같은 논문.

30) 같은 논문 p. 40.

〈표-17〉

침체원인을 교내에서 찾을때

구 분	초 등 (%)	중 등 (%)	계 (%)
학 교 행 정 가 (문교부, 교위 등)	65 (59.1)	78 (70.9)	143 (65.0)
학 교 장	27 (24.4)	24 (21.8)	51 (23.2)
사서교사, 담당교사	7 (6.4)	3 (2.7)	10 (4.5)
일 반 교 사	7 (6.4)	2 (1.8)	9 (4.1)
학 생 들	3 (2.7)	2 (1.8)	5 (2.3)
기 타	1 (1.0)	1 (1.0)	2 (0.9)
계	110 (100)	110 (100)	220 (100)

가 절실히 요청된다.

마지막 질문으로, 「학교도서관이 발전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거의 半數(46.4%)가 「예산확보」를 要求하고 있으며 그 다음 「조직기구의 개편」과 「학교장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제 2 순위에서도 「학교장의 관심」과 「예산확보」를 建議하고 있으며 제 3 순위에서 「무응답」의 반응이 71%가 나타난 것은〈표-18 참조〉, 위에 지적한 몇가지만 우선 해결된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것이라고 推察할 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중의 상당수가 「교사의 의욕」을 自省하고 「희생적인 봉사자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음은 우리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보겠다.

이상과 같은 질의로써 개략적인 調査가 끝나지만 응답자와의 직접 對面과 書面으로 얻은 그들의 意見과 提言은 매우 眞摯하였다. 發展策에 관한 그 내용을 要約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1) 國民學校 教師의 提言

첫째, 圖書館法의 改定을 要求하고 각 학교마다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신설토록 할것

둘째, 圖書館과 그施設에 과감한 財政的投資를 하고 예산편성시 「圖書館費」를 제도적으로 保障토록 할것

셋째, 각급 학교마다 司書教師 내지 專擔教師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할 것이며 그 身分과 地位를 우대토록 할것

네째, 시골학교의 遊休教室을 도서관(실)으로 개조하여 유기적으

구 분	초 등			중 등			계		
	1 순	2 순	3 순	1 순	2 순	3 순	1 순	2 순	3 순
예 산 확 보	53 (48.2)	21 (19.1)	8 (7.3)	49 (44.5)	29 (26.4)	7 (6.4)	102 (46.4)	50 (22.7)	15 (6.8)
조직기구개편	33 (30.0)	12 (10.9)	3 (2.7)	34 (30.9)	15 (13.6)	3 (2.7)	67 (30.5)	27 (12.3)	6 (2.7)
학교장외관심	18 (16.4)	30 (27.3)	8 (7.3)	22 (20.0)	27 (24.6)	10 (9.1)	40 (18.2)	57 (25.9)	18 (8.2)
교사외의목	4 (3.6)	18 (16.4)	5 (4.5)	2 (1.8)	2 (1.8)	7 (6.4)	6 (2.7)	20 (9.1)	12 (5.5)
회생적봉사	2 (1.8)	7 (6.3)	8 (7.3)	3 (2.8)	4 (3.6)	4 (3.6)	5 (2.2)	11 (5.0)	12 (5.5)
무 응 답	- (-)	22 (20.0)	78 (70.9)	- (-)	33 (30.0)	79 (71.8)	- (-)	55 (25.0)	157 (71.3)
계	110 (100)	110 (100)	110 (100)	110 (100)	110 (100)	110 (100)	220 (100)	220 (100)	220 (100)

로 活用토록 할것

2) 中學校教師의 提言

첫째, 圖書館法을 개정 하든지 「學校圖書館法」을 별도로 制定하여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할것

둘째, 「司書主任制度」를 만들어 도서관업무만 전담토록 하며 讀書指導 및 독서의 生活化로 教育方法을 改善하며 학교활동을 圖書館中心으로 진행시킬것

셋째, 학교마다 도서관을 갖추고 法기준에 의한 基本施設을 구비토록 할것

네째, 도서관 운영비를 豫算項目에 반드시 포함시키며 일정 비율에 의거 학생을 위한 자료와 교사를 위한 자료를 갖추게 할것

3) 高等學校教師의 提言

첫째, 圖書館法을 개정하고 司書教師의 地位를 보장하며, 처우를 개선하고 一般教師와 같이 1級, 2級正教師로 區分하여 시행할것

둘째, 現行 入試制度를 改善하여 도서관을 통한 수업을 진행토록 유도하고 도서관 行政體制를 강화할것

셋째, 學校圖書館에 대한 사회적 沒認識과 教育行政家 및 學校長의 無關心을 일깨우도록 그들에게 「司書教育」을 실시하고 弘報活動을 전개할것

네째, 현재 「도서관(실)」을 맡은 教師가 他科目의 수업과 雜務로 인하여 도서관업무에 충실치 못하므로 專擔業務만 하도록 장학지도를 강구할것

다섯째, 도서관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담당교사의 意欲이 필요하고 희생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토록 할것

4. 結 言

이 상에서 考察한 바와같이 현재 우리나라 學校圖書館은 학교교육의 圓滑한 遂行을 위해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명칭뿐 인 存在로만 남아 政策決定者와 사회의 意識속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教育政策은 入試를 위한 교육, 暗記를 위한 교육만을 標榜하는 듯한 인상이 짙어 학교교육에 있어서 學校圖書館은 별로 必要하지도, 아쉽지도 않아 教育의 死角地帶로 疎外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오고 있다.

그러나 歐美諸國을 비롯하여 文化先進國에서는 이를 소홀히 앓고 制度

的으로 잘 保存되고 活用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20여년전(1963년)에 「圖書館法」을 제정하여 運用하고 있지만 法規가 워낙 不實하고 現實性이 없어서 수차례의 建議과 陳情이 있었으나 아직도 改定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행정당국에서도 學校圖書館의 育成을 위한 특별한 조치도 찾아볼 수 없었고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학교도서관은 發展은 커녕 沈滯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假定하여 두고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學校圖書館의 實態와 문제점을 찾아 보았으며, 특히 학교도서관과 도서실, 司書教師, 그리고 施設과 藏書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다. 이와 관련지어 全國 곳곳에 散在한 初, 中等學校의 在職教師 220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所屬學校의 圖書館現況과 要求를 알아보고, 그들이 現職에서 생각하는 圖書館觀과 圖書館機能등을 알아 보고 그들을 통한 학교도서관의 沈滯要因과 發展策에 관해서도 聽聞하여 教育現場에서 바라는 提言을 收斂하는데 主眼을 삼았다.

먼저 統計에 의한 우리나라 學校圖書館의 현황을 보면, 전국 6천5백개의 국민학교중 50개(0.07%)의 도서관과 2천1백62개의 도서실이 있으며, 중등학교는 3천7백48개교중 200개(0.5%)의 도서관과 2천2백19개의 도서실이 있다. 숫적 열세로 나타난 학교도서관의 설치수는 우선 圖書館政策不在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 배치된 司書教師 및 司書의 수는 초등학교에는 572인이 있고 중등학교에는 1천2백36인이 재직하고 있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실)수에 견주어서도 절대수가 부족하다. 한편, 在職 司書教師들의 資格證 所持有無에서 보면 749인으로 전체 사서교사 1천8백8인의 절반도 못되어 나머지는 모두 無資格者가 관리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政府는 수년전 부터 현직에 종사하는 일반교사로 하여금 240여 시간의 短期講習을 통한 일시적 조치로 「司書教師」 資格證을 주어오고 있다. 이와같은 制度는 司書教師의 專門性의 천명과, 質的 低下를 막기 위해서도 부당한 처사이며, 현재 四年制大學등에서 정기적으로 배출되는 人力의 需給狀況으로 보아서도 廢止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에 設備하는 藏書와 제반 施設, 備品の 수에 있어서도 基準直에 상당히 미달하고 학생수나 교직원수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統計上 부족수는 設問에서 調査한 220학교에서 나타난 현상과 같은 반응의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그 다음, 이들을 통하여 나타난 圖書館觀과 學校圖書館의 기능, 必要性, 要求등을 찾아 整理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77.4%가 학교도서관이 教育活動에 있어서 절대, 또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하며, 현재 도서관에서 시급한 순서는 「시설확보」 「장서확보」 「직원확보」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서관」을 聯想할때 「장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85%가 되고 있음은 도서관은 「서고」 내지 「입시공부방」 정도로 생각해 온 종래의 觀念에서 상당한 변화된 현상을 보였다.

셋째, 학교시설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 1순위에서 「도서관」이 67.7%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제 2순위에서도 「도서관」이 13.6% (「무응답」 59.1% 제외)로 제일로 첫번째 필요하며 요즘 유행하는 「컴퓨터」나 「TV 및 VTR」은 下位の 필요순으로 나타났다.

네째, 이들이 생각하는 학교도서관의 機能은 「독서습관을 형성」해 주고 「자료를 열람제공」해주는 기능이 앞서열에 나타나 있어 전문가가 보는 理想的인 학교도서관의 기능에 잘 부합되고 있다.

다섯째, 학교도서관이 沈滯된 要因을 政治, 經濟, 社會, 教育的 4個의 環境의 要因에서 찾을 때 60.9%가 「경제적요인」을 지적하여 학교도서관의 財政的 投資를 渴望하고, 學校內的인 次要인으로는 文敎部, 教育委員會등 學校行政家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며 學校長의 傍觀 및 認識不足이 발전의 障礙要因임을 알고있다.

여섯째, 학교도서관이 發展하는데 필요한 것은 「예산확보」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직기구의 개편」과 「학교장의 관심」이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크게 作用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의 의욕」과 「희생적인 봉사자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음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끝으로, 이들 教師들과 書面 및 面談을 통해서 얻은 提言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圖書館法을 改定하고(또는 「學校圖書館法」을 신설) 각급학교마다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設置토록 한다(초, 중, 고교)

나. 도서관과 그시설에 대하여 과감한 豫算投資를 하고 圖書館運營費를 제도적으로 예산항목에 삼입토록 한다(초, 중)

다. 「사서주임교사」제도를 신설하여 도서관업무만 전담토록 하고 이들에 대한 지위 및 승진기회를 부여한다(중, 고)

라. 현행 入試制度를 개선하고 도서관을 통한 수업을 진행토록 하며, 학교도서관의 새로운 인식을 주기 위하여 學校行政家를 위한 司書教育 및 弘報活動을 전개한다(고)

마. 학교도서관의 올바른 認識과 發展을 위해 현직 教師의 意欲과 희생적인 奉仕精神이 반드시 필요하다(중, 고)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學校圖書館은 현재 미흡한 상태에 있고 改善할 점이 적지않게 山積해 있다. 現職教師의 要求와 提言이 우리 형편상 당장 實現不可能한 것이 없지 않지만 그들이 보는 圖書館觀은 論理整然하고 妥當성이 있으며 正確하고 現實感이 풍부하다.

은 社會가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教育行政家와 一般教師, 司書教師가 이들의 提言을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올바른 認識으로 努力을 倍加할 때 學校圖書館의 모습은 새로운 자세로 변모해 질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教育大學圖書館學研究會編, 學校圖書館 서울: 學校圖書館(株), 1964.
- 2) 金京一, 學校圖書館의 組織과 管理, 서울: 現代教育業書出版社, 1971.
- 3) 김중환, 학교도서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2.
- 4) 文教統計年報, 서울: 문교부, 1983.
- 5) 한국도협, 기준분과위원회,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협, 1981.
- 6) 金容喆, 學校圖書館 Media Center 化를 위한 研究, 中央大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83.
- 7) 金正昭, 學校圖書館組織과 運營에 관한 研究, 啓明大教育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74.
- 8) 金南碩, 金正昭, “學校圖書館發展의 沮害要因에 관한 實證的 考察,” 圖書館學論集, 第7輯(1980) p. 1 ~ 55.
- 9) 金坪勳, “學校圖書館關係法規에 관한 考察,” 光州教大論文集, 第16輯(1978) p. 287 ~ 316.
- 10) 朴東棟, “學校圖書館基準에 관한 考察,” 春川教大論文集, 第16輯(1976) p. 31 ~ 53.
- 11) 朴大權, “學校圖書館運營의 活性化 方案,” 文教行政 8호(1982. 8) p. 13 ~ 16.

- 12) 孫文哲, “學校圖書館職員의 資質과 그 職務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論集, 第7輯(1980) p. 85 ~ 112.
- 13) 李正熙, “學校圖書館機能의 轉換期와 그 對策,” 文教行政 8호(1982. 8) p. 17 ~ 21.
- 14) 李漢龍, “學級文庫나 學校圖書館이나?” 연세교육과학 8집(1975) p. 206 ~ 217.
- 15) 최성진, “학교도서관 — 교육정보 「시스템」의 관점에서 본 그 기능에 대하여,” 圖書館學會誌(延大圖書館學會) 4號(1979) p. 117 ~ 136.
- 16) Choi, S. J. “The Function of the School Library : A Revisionist Definition,” 成均館大學校論文集(人文, 社會系), 第24輯(1979) p. 85 ~ 102.
- 17)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s, Chicags : A. L. A. 1971.
- 18)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Media programs: District School, Chicags : A. L. A. 1975.
- 19) Carroll, Frances Laverne, Recent Advances in School Librarianship, Oxford : pergamon Pr. 1981.
- 20) Fargo. L. F., The Library in the School, Chicago : A. L. A. 1974.
- 21) Herring, J. E. ed., School Librarianship. London : Clive Binglep, 1982.
- 22) Thomason, Nevada Wallis, The Library Media Specislist in Curriculum Development, London : The Scarecrow Pr. 1981.
- 23) Hannigan, Jane A. “School Media Standards,” Library Trends. Vol. 31, No. 1 (Summer 1982)
- 24) Luskey, Jack R. “Current Trends in School Library Media Centers,” Library Trends, Vol. 31, No. 3 (Winter 1983)

〈附 錄〉

設 問 紙

여기에 준비한 設問紙는 韓國의 初, 中等學校를 중심으로 學校圖書館의 현실과 내용을 원초적으로 파악해 보며 教育一線에 奉職하고 계시는 先生님을 통하여 평소에 생각해 오시던 圖書館觀을 알아보고 學校圖書館의 실태와 기능 및 急先務 등을 찾아보며, 現在 學校圖書館의 沈滯狀態에 대해서도 서로 共感해 보며 그 저해요인을 확인해 보고, 나아가 앞으로 도서관의 發展方向을 찾아 보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이 質疑書는 저 個人的 조그마한 學術研究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研究目的 이외에는 절대로 使用치 않겠아오니 (無)記名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 8월 일

全北大學校圖書館學科

崔 貞 泰

1. 선생님의 성별; 남 _____ 여 _____
2. 연령; 20 ~ 30 세, _____ 31 ~ 40 세, _____ 41 ~ 50 세, _____ 50 세이상.
3. 교육경력; 1 ~ 5 년, _____ 5 ~ 10 년, _____ 10 ~ 20 년, _____ 20 년이상.
4. 근무학교; 초, _____ 중, _____ 고. _____
5. 근무학교위치; 대도시 (20 만 인구가 이상), _____ 중소도시, _____ 시골. _____
6. 재직학교의 총학생수; 약 _____ 명
7. 재직학교의 교원수; 약 _____ 명
8. 재직학교는 「학교도서관」(도서실포함)이 있습니까? ; 예, _____ 아니오. _____
9. 있다면, 가장 급선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직원 확보, _____ 장서 확보, _____ 시설 확보 _____

10. 없다면, 그 필요성은? ; 절대필요하다, _____ 어느정도 필요하다, _____ 있으나 마나이다, _____ 별로 필요없다. _____
11. 사서교사는? ; 있다, _____ 없다. _____
12. 있다면, 자격증은; 있다, _____ 없다. _____
13. 그리고, 도서관교육과 일을; 전담한다, _____ 다른일도 겸임한다. _____
14. 도서관(실)의 장서수(추정책수)는; 1,000책미만, _____ 1,000~5,000책, _____ 5,000~10,000책, _____ 10,000책이상. _____
15. 열람좌석수는; 100석이하, _____ 100~500석, _____ 500~1,000석, _____ 1,000석이상. _____
16. 학교도서관은 독립된 건물입니까? (도서관(실)이 있는 경우) 예, _____ (약 평), _____ 아니오. _____
17. 선생님은 「도서관」이라하면 먼저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건물, _____ 장서 혹은 도서, _____ 서고, _____ 사서, _____ 정보, _____ 시험, _____ 기타 _____
18. 대체로 학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 또는 기구는 다음에서 무엇입니까? (2이상이면 순위기재요함); 컴퓨터, _____ TV 및 VTR, _____ 도서관, _____ 실험실습실 또는 기구, _____ 체육관, 강당, _____ 기타 _____
19. 학교도서관의 기능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부터 순위를 주십시오; 학급문고조력, _____ 교재연구조성, _____ 독서습관형성, _____ 자료열람제공, _____ 자료정리제공, _____ 자료정리기능, _____ 기타기능 _____
20. 학교도서관이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원천적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정치적요인, _____ 경제적요인, _____ 사회적요인, _____ 교육적요인, _____ 기타 _____
21. 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면 어째서? 왜?
22. 그리고, 이것을 학교내에서 찾아 볼 때 다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학교행정가(문교부, 교육위원회등), _____ 학교장, _____ 사서교사 또는 담당교사, _____ 일반교사, _____ 학생들, _____ 기타 _____
23. 학교도서관이 발전하려면 다음의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까? (둘이상이면 순위기재요); 예 산확보, _____ 조직기구개편 (도서관법개정등), _____ 학교장의 관심, _____ 교사들의 의욕, _____ 희생적봉사자의 출현, _____ 기타 _____

24. 끝으로, 학교도서관이 발전하는데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계시면 적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